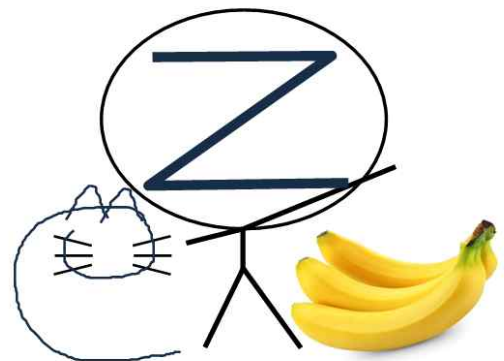


Zola 생윤 1

-개념의 모든 것-

II. 문제 모음



오르비 인강 교재(<https://class.orbi.kr/>)

교재 구성의 '특이' 사항과 Zola의 의도

Zola 생운 1의 교재는 총 2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I. 자료 모음

II. 문제 모음

각각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I. 여러분이 챙겨가야 할 교재는 《자료 모음》입니다.

n회독 하십시오! Zola의 자랑거리이자 현강생(특히 고4 이상)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자료집입니다. 현 교육과정의 5종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는 물론이거니와 13년부터 시작된 생운의 교과서, 평가원 및 연계교재(ebs 수특과 수완) 자료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원전과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적절한 논문이나 대학 교재들까지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와 함께 다양한 연습 문제들을 실었는데, 여기 실린 문제들은 중급 이상의 난이도들입니다(최상급 다수). 그래서 반드시 개념 공부(백지 복습) 후에 문제를 풀고, 처음 풀 때는 문제에 답을 표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연습장에 답을 표시하든, 여백에 표시하든 하세요). 최소 2번 이상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끔 하시길 바랍니다.

* 주: 교과서 자료를 언급할 때 현행 교육과정(15 개정)은 교과서 출판사 '만' 언급하였고, 이전 교육과정의 경우 출판사-해당 교육과정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예) 비상교육 → 15 개정 비상교육 교과서임

비상교육-09개정 → 09 개정 비상교육 교과서임(09 개정은 16학년도~20학년도까지)

II. 《문제 모음》은 활용도가 높은 평가원 기출들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본 교재에 실려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평가원 기출입니다. 시중의 교재들을 보면 사실 문제를 바탕으로 개념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비추입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좋은 문제들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좋은 문제는 평가원입니다. 여기에 학습에 도움될 만한 교육청 문제들과 ebs 및 사설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여러분을 연습시키기 위해 '주관식'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본 교재에 실려있는 문제들만으로도 시중의 기출 문제집 1권 분량이 됩니다(350~400문항). 따라서 여러분의 공부량에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앞서 언급한 자료 부분의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기본과 심화 모두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III. 개념 교재는?

Zola가 제공하는 개념 교재는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필기 노트가 개념 교재입니다!

많은 수험생이 개념 정리 부분에 별표나 밑줄을 긋고 외우는 것으로 개념 공부를 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시중의 참고서(ebs 포함)를 n회독을 했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개념이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개념 정리는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강의 노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교재는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개념 노트를 만드세요. 만드는 법은 탐구 공부법 안내 인강인 '망하는 생운, 성공하는 생운' 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의 개념 노트를 만들고 그것을 수능 때까지 백지복습 및 n회독 하시길 바랍니다.

Zola의 교재가 그리고 강의가 올해 여러분의 입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열공+즐공=대박!!!

교재 목차

* 번호: 대단원-순서

예) 1-1 ⇒ 대단원 1단원의 첫 번째 주제라는 의미임.

1-1: 윤리학의 구분 --- 5

1-2: 동양 윤리+자연관 --- 8

1-3: 서양 윤리 --- 17

1-4: 도덕적 추론 --- 27

1-5: 토론, 말의 자유론 --- 29

2-1: 죽음관 --- 32

2-2: 인공 임신 중절, 안락사, 뇌사, 생명 복제, 유전자 치료, (자살, 동물 실험) --- 35

2-3: 성·사랑 --- 41

2-4: 결혼과 가족의 윤리 --- 43

3-1: 직업 사상가 --- 48

3-2: 직업 윤리(기업, 전문직, 공직자) --- 51

3-3: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니부어) --- 53

3-4: 사회 정의의 분류(아리스토텔레스) --- 59

3-5: 분배 정의 --- 60

3-6: 소수자 우대 정책(차별과 역차별) --- 69

3-7: 교정 정의(형벌, 사형제) ---70

3-8: 국가와 시민의 윤리(1) 동·서양의 국가관 --- 78

3-9: 국가와 시민의 윤리(2) 시민 불복종 --- 86

4-1: 과학기술과 윤리 --- 95

4-2: 정보윤리+매체윤리 --- 97

4-3: 자연과 윤리(서양의 자연관) --- 100

4-4: 환경 문제와 미래세대 --- 117

5-1: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 119

5-2: 의식주 윤리 --- 123

5-3: 다문화 윤리 --- 125

5-4: 종교와 윤리 --- 127

6-1: 갈등과 소통, 민족 통합 --- 131

6-2: 국제관계와 국제분쟁 --- 134

6-3: 국제 평화와 정의 전쟁 --- 137

6-4: 세계화와 해외 원조 --- 142

zola amazing 답 --- 148

6-4: 세계화와 해외 원조

367)[16-6-9]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강연자는 생략)

우리는 온난화 또는 테러와 같은 글로벌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무차별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 범위가 방대하여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계급이나 어떤 국가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글로벌 위험 사회'의 인류는 유토피아를 꿈꾸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지 않기를 원하기에 글로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 ① 글로벌 위험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② 글로벌 위험은 인류 전체를 광범위하게 위협하고 있다.
- ③ 글로벌 위험은 세계 시민주의의 근거를 약화시키고 있다.
- ④ 글로벌 위험은 인류 공존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자각시키고 있다.
- ⑤ 글로벌 위기의 대응 원칙은 이익의 최대화가 아닌 위험의 최소화이다.

368)[15-6-20]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과 같이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p>갑: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인류의 고통 감소와 이익 증진을 위해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외 원조를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느 국가의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p> <p>을: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체제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해외 원조를 해야 한다. 빈곤의 문제는 주로 정치 체제의 결함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각 사회의 고유한 문화나 역사에 따라 필요한 부의 수준은 다르다.</p>
(나)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bottom: 10px;"> <p><범례></p> <p>□ : 출발 조건</p> <p>◇ : 판단 내용</p> <p>→ : 판단 방향</p> <p>~~~~~ : 사상가의 입장</p> </div>

- ① A: 해외 원조는 의무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② B: 국가보다 개개인에 초점을 맞춰 해외 원조를 해야 하는가?
- ③ B: 인류 전체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해외 원조를 해야 하는가?
- ④ C: 빈곤 문제 해결에서 사회 제도의 개선이 중시되어야 하는가?
- ⑤ C: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해외 원조의 수준은 동일해야 하는가?

369)[17-9-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만민들의 사회의 기본 구조에서 일단 원조의 의무가 충족되고 모든 만민이 자유주의적 정부나 적정 수준의 정부가 작동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상이한 만민 간의 평균적 부의 차이를 다시 좁혀야 할 이유는 없다.

을: 기아의 원인은 인구 과잉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다. 선진국 사람들은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자신들의 이익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넘쳐 나는 식량을 원조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

- ① 갑: 모든 국가의 복지 및 부의 수준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 ② 갑: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빈곤과 기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 ③ 을: 사회 내 부조와 해외 원조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 ④ 을: 원조는 그 결과와 무관하게 빈곤자들에 대한 관심의 실천이다.
- ⑤ 갑, 을: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는 보편적 의무로 간주해야 한다.

370)[16-9-19] 갑 사상에 비해 을 사상이 갖는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만약 국제 사회에서 어떤 사회가 불리한 여건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사회가 적정 수준의 문화를 형성하여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을: 만약 도덕적으로 상응하는 중요한 것을 희생하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나쁜 일을 막아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71)[16-수능-5] 해외 원조에 대한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원조는 만민이 공정하게 분담해야 할 전 지구적 의무이다.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남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1%를 기부하여 세계의 빈민을 도와야 한다.

을: 원조는 차등의 원칙을 국제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들이 만민의 사회의 충분한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 ① 갑: 큰 희생 없이 타국의 빈민을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한다.
 ② 갑: 인류 전체의 공리 증진을 위해 원조의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③ 을: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원조해야 한다.
 ④ 을: 국제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원조해야 한다.
 ⑤ 갑, 을: 해외 원조는 자선이 아닌 당위의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

372)[18-6-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달리 만민법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모든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때까지 만민법에 따라 원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을: 세계를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기 전에 영양실조와 가난으로 죽어 갈 것이다. 원조의 의무는 인류 전체의 공리 증진을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

- ① 갑: 모든 빈곤국을 원조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② 갑: 원조 정책은 지구적 차등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③ 을: 질서 정연한 사회의 빈민은 원조의 대상일 수 없다.
 ④ 을: 원조의 의무는 국경을 초월한 세계 시민적 의무이다.
 ⑤ 갑, 을: 원조를 통해 모든 사회의 복지 수준을 일치시켜야 한다.

373)[19-9-3]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의하면 질서 정연한 사회란 그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하고 공적 정의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규제되는 사회이다. 그런데 정의의 원칙을 자기 사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고 세계를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기 전에 빈곤으로 인해 죽어갈 것이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만 한다.

- ① 원조 대상자의 국적은 원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지 않다.
 ② 원조는 전 지구적 차원의 윤리적인 의무로 정당화될 수 없다.
 ③ 원조 대상에서 질서 정연한 사회의 빈곤한 시민은 제외되어야 한다.
 ④ 원조는 인류의 공리 증진이 아닌 지구적 정의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
 ⑤ 원조의 최종 목적은 고통 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374)[19-6-17]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소득 중 일부는 기부해야 한다. 원조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다른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는 한 마땅히 원조해야 한다.
 을: 개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의 배타적 소유권을 타인의 삶과 행복을 명목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원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이다.
 병: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적 의사 결정이 제도화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해외 원조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의 자유와 평등 확립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 ① 갑은 모든 개인의 원조 의무를 규정하는 보편 원리는 없다고 본다.
- ② 을은 해외 원조를 최소 국가가 강제해야 하는 의무라고 본다.
- ③ 병은 정의의 원칙이 확립된 자원 빈곤국은 원조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④ 갑, 병은 국제 기구를 통한 원조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⑤ 을, 병은 국가 간 부의 격차 해소 후에는 원조 의무가 없다고 본다.

375)[19-수능-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권에 대한 강조는 무능한 정치체제나 국민의 복지에 무감각한 통치자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작용할 수 있으며 기근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로 바뀌도록 돕는 데 있다.
 을: 인권 유린이 없거나 절대 빈곤 상태가 아니라 해서 개인을 돕는 일에 관계하지 않는 국제 정의의 원칙은 옳지 않다. 우리는 지구상 모든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되지 못한 개인들을 도와야 한다.

- ① 갑: 원조의 목적은 국가 간 경제적 평등을 위한 분배 정의 실현이다.
- ② 갑: 원조 대상국에게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권고해서는 안 된다.
- ③ 을: 원조 대상은 최대 효용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 ④ 을: 원조 주체의 과도한 희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조해야 한다.
- ⑤ 갑, 을: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들 간의 부의 수준 조정을 지향해야 한다.

376)[20-6-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원조는 빈곤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원조를 해야 한다.
 을: 원조의 목적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편입시켜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보기>

- ㄱ. 갑: 공리의 원리에 따라 인류의 부가 균등할 때까지 원조해야 한다.
- ㄴ. 갑: 원조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만 한다.
- ㄷ. 을: 자립적인 정의 사회는 빈곤해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ㄹ. 갑, 을: 해외 원조는 자선의 차원을 넘어 윤리적 의무가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77)[20-수능-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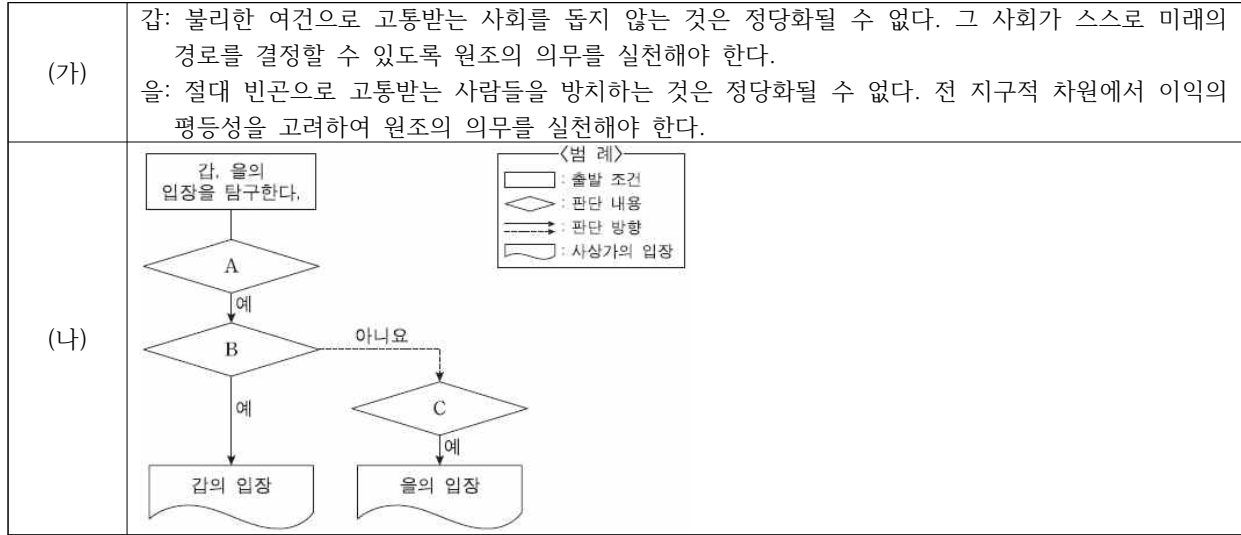
갑: 우리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사치품을 구입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기부하지 않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죽음이 무한정 지속되는 현실에 무관심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을: 질서 정연한 사회들의 장기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 정연한 만민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다. 이는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를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 만민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보기>

- ㄱ. 갑: 자국민에 대한 우선적 원조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도 있다.
- ㄴ. 갑: 모든 사람은 빈곤 해소를 위한 원조에 동등한 부담을 져야 한다.
- ㄷ. 을: 적정 수준의 제도 확립에 막대한 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 ㄹ. 갑, 을: 인권이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도 원조 대상에 포함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78)[21-9-1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A: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원칙은 원조의 근거인가?
 - ㄴ. B: 천연자원이 부족한 빈곤국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가?
 - ㄷ. B: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에 자유를 확립하는 것인가?
 - ㄹ. C: 원조 주체는 원조 결정 시 자기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79)[21-수능-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p>갑: 원조의 목적은 고통 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어떤 사회가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통치된다면, 자원이 부족해도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다.</p> <p>을: 원조는 극단적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원조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인종과 국적의 구분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p>
--

<보기>

- ㄱ.갑: 사회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 원조는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ㄴ.갑: 원조하는 나라는 원조받는 나라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 ㄷ.을: 원조 주체의 경제력에 대한 고려없이 원조가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
 - ㄹ.갑, 을: 다른 나라에 빈곤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원조의 의무를 정당화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80)[24-6-14, 주관식]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 보세요!

<p>갑: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가 필요하다. 원조의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들이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나 차단점을 넘어서면 원조는 필요 없다.</p> <p>을: 절대 빈곤은 매우 나쁜 것이다.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시키지 않고 절대 빈곤을 감소시킬 힘이 있다면, 인류 복지의 최대화를 위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p>

<보기>

- ㄱ. 갑: 공격적인 사회는 자원이 매우 부족해도 원조 대상이 아니다.
- ㄴ. 을: 절대 빈곤의 감소를 위한 원조는 예외 없는 도덕적 의무이다.
- ㄷ. 을: 원조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른 전 지구적 의무이다.
- ㄹ. 갑과 을: 원조 대상의 경제력은 원조 결정의 고려 사항이 아니다.

381)[22-6-12]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 국가이어야 한다. 국가는 시민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강제적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p> <p>을: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사회에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이 국제 사회에 적용될 이유는 없다.</p> <p>병: 자국민을 돕는 것이 원조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나라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p>
(나)	

<보기>

- ㄱ. A: 모든 원조는 원조 주체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가?
 ㄴ. B: 원조는 자원 분포의 우연성의 결과를 조정하려는 것인가?
 ㄷ. C: 원조를 중단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규정해야 하는가?
 ㄹ. D: 원조는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382)[22-수능-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우리가 하는 원조의 역할은 고통받는 사회가 만민들의 사회의 완전한 성원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미래의 경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p> <p>을: 우리의 풍요로움을 우리 사회의 시민에게만 나누어 주는 것은 잘못이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혜택을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p> <p>병: 우리는 최소 국가 안에서 삶을 선택하고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같은 존엄성을 지닌 다른 개인들의 자발적인 협동의 도움을 받는다.</p>
(나)	

- ① A: 원조의 중단 지점을 두는 것은 원조 목적에 위배됨을 간과한다.
 ② B: 원조 대상을 선정할 때 상대적 빈곤은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간과한다.
 ③ C, E: 자신의 이웃을 먼저 돕는 것이 정당한 경우가 있음을 간과한다.
 ④ D: 자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⑤ F: 원조 대상국이 자국의 부정의를 교정하도록 도와야 함을 간과한다.

383)[23-9-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을 겪는 사회들을 위해 원조해야 한다. 그런데 분배 재원만으로는 정치적·사회적 부정의를 교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고통을 겪는 사회들의 정치 문화가 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을: 풍요로운 국가의 사람들 대부분은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빈곤을 막기 위해 원조해야 한다. 그들이 소득의 1퍼센트 정도만 기부하면 전 세계 빈곤층을 완전히 없애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 ① 갑: 고통을 겪는 사회가 자국민 인권에 관심을 갖게 원조해야 한다.
- ② 갑: 원조의 목적은 합당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실현과 보존에 있다.
- ③ 을: 기아의 주된 원인은 전 세계 식량 총 생산량의 부족에 있지 않다.
- ④ 을: 모든 사람은 세계 모든 이의 복지에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 ⑤ 갑과 을: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이 그 자체로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

384)[23-수능-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원조의 목적이 충족되고, 모든 만민이 자유주의적 정부나 적정 수준의 정부로 작동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상이한 만민 간의 평균적 부의 차이를 다시 좁혀야 할 이유는 없다.
 을: 절대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은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절대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것은 공리의 원리에 따른 도덕적 의무이다.

<보기>

- ㄱ. 갑: 공적 정의관이 규제하지 않는 사회는 원조 대상이 될 수 없다.
 - ㄴ. 갑: 원조는 원조 대상이 정치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ㄷ. 을: 원조의 의무는 절대 빈곤에 상당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할 것을 원조 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 ㄹ. 갑과 을: 특정 빈곤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85)[24-수능-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질서 정연한 사회의 장기 목표는 무법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에 가입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고통받는 사회가 적정 수준의 사회가 되면 더 이상의 원조는 필요하지 않다.
 을: 우리는 인류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할 의무를 지닌다. 우리에게는 얼마 되지 않는 비용으로 곤궁한 타인의 복리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때 발생하는 의무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보기>

- ㄱ. 갑: 독재나 착취로 빈곤한 사회는 원조 대상이 될 수 없다.
 - ㄴ. 갑: 고통받는 사회가 스스로 정치 문화를 개선하도록 원조해야 한다.
 - ㄷ. 을: 지구촌의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의 의무는 정언 명령이다.
 - ㄹ. 갑과 을: 원조의 목적은 인류 복지 수준의 균등화가 아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수고하셨습니다^^ Follow Zola!! -----

zola amazing 답 + Zola Guide

[주의] 아래에

50%	28%	8%	4%	9%
-----	-----	----	----	----

와 같이 제시된 것은 선지 ①~⑤의 정·오답률(메가스터디 공개 자료)임. 단, 필요한 경우에는 ebsi 통계와 종로 내부 통계 자료를 일부 활용하였음. 문항 분석할 때 참고하시길 바람. 오답률이 10% 넘어가는 선지들은 주의깊게 살펴보되 10%보다 낮은 선지들은 별도의 분석 필요없이 가볍게 넘어가도 됨.

- 1) ③

5%	1%	48%	43%	3%
----	----	-----	-----	----
- 2) ④

2%	4%	1%	85%	7%
----	----	----	-----	----
- 3) ③

2%	2%	91%	3%	2%
----	----	-----	----	----
- 4) ⑤

5%	9%	8%	4%	74%
----	----	----	----	-----
- 5) ②

1%	92%	2%	4%	1%
----	-----	----	----	----
- 6) ②

3%	87%	3%	3%	4%
----	-----	----	----	----
- 7) ③

2%	2%	92%	2%	2%
----	----	-----	----	----
- 8) ③

9%	5%	72%	6%	8%
----	----	-----	----	----
- 9) ④

2%	2%	1%	93%	1%
----	----	----	-----	----

10) ㄱ, ㄴ, ㄷ

☞ Zola Guide **≡**을 놓치면 분류법 다시 확인!

(가) 규범 실천, (나)는 규범 이론. 따라서 두 입장 모두 규범(≡)임!!

11) ②

- 12) ⑤

2%	5%	2%	9%	80%
----	----	----	----	-----
- 13) ③

5%	7%	68%	4%	16%
----	----	-----	----	-----
- 14) ①

80%	3%	10%	3%	4%
-----	----	-----	----	----
- 15) ④

9%	6%	6%	76%	3%
----	----	----	-----	----
- 16) ①

89%	2%	4%	3%	2%
-----	----	----	----	----
- 17) ②

22%	43%	16%	13%	5%
-----	-----	-----	-----	----

☞ Zola Guide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도가 제시문임. 이 제시문이 왜 도가인지는 개념 강의와 자료 교재에서 설명하였음. 정답률이 낮은 이유는 선지 때문이 아니라 제시문 때문임.

② ‘욕심을 버림’이나 ‘도를 따름’은 동양 사상 모두에 해당 가능함. ‘소박’이라는 것에서 도가임을 확정할 수 있음.

- 18) ②

1%	79%	18%	0%	2%
----	-----	-----	----	----
- 19) ④

2%	1%	6%	88%	2%
----	----	----	-----	----
- 20) ④

15%	2%	2%	80%	1%
-----	----	----	-----	----
- 21) ①

88%	2%	3%	3%	4%
-----	----	----	----	----
- 22) ④

2%	2%	13%	77%	6%
----	----	-----	-----	----
- 23) ①

83%	3%	4%	9%	1%
-----	----	----	----	----
- 24) ④

6%	14%	7%	69%	4%
----	-----	----	-----	----

☞ Zola Guide 제시문 ‘도가’임. 분별하지 않는다는 제시문에서 읽어내면 됨.

- 25) ①

81%	3%	6%	6%	4%
-----	----	----	----	----
- 26) ①

26%	4%	59%	6%	5%
-----	----	-----	----	----

☞ Zola Guide 제시문 ‘도가’임. 이 문제의 제시문은 7년 후 23-수능에서 바나나들을 완전 저격했음. 34번 [23-수능-2] 제시문과 비교해 볼 것.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동양 윤리는 제시문을 가지고 바나나들을 저격하니 우리들 속에 있는 바나나를 Zola 강의를 들으면서 제거하도록 수양(?)해야 함^^

- 27) ①

90%	2%	6%	1%	1%
-----	----	----	----	----
- 28) ③

4%	13%	75%	4%	4%
----	-----	-----	----	----
- 29) ③

2%	3%	82%	12%	2%
----	----	-----	-----	----
- 30) ③

3%	2%	87%	7%	1%
----	----	-----	----	----

31) ②

1%	88%	4%	2%	4%
----	-----	----	----	----

32) ③

5%	4%	76%	11%	4%
----	----	-----	-----	----

33) ⑤

3%	7%	7%	3%	80%
----	----	----	----	-----

34) ①

31%	50%	2%	9%	8%
-----	-----	----	----	----

☞ Zola Guide (1) 선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갑’ 제시문을 유가로 착각해서 틀렸음. 갑 제시문이 왜 유가가 아니라 도가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임. Zola는 ‘anti 유가’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고, 그 방법은 수업 시간에 다루었음. 이래는 수능 끝나고 만점 받았다면서 어느 분이 쪽지로 보낸 내용 중 일부입니다.

2번문제에서 갑의 입장을 도교가 아닌 유교로 착각한 학생들이 많아서 정답률이 20프로밖에 안 되던데
18분 전
선생님이 도가를 anti유가라고 설명해주신 덕분에 안 낙인 것 같아요...이지x 김종x 강의에는 절대 안 나오는 내용...

(ebs 기준으로는 정답률이 20%대임)

(2) 이 문제 틀린 분들은 바나나 제거 특강(Zola 생윤 O)에서 강조했던 기출 바나나가 되면 안 된다는 다시 한 번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갑 제시문은 기출 제시문이 재활용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강의에서 확인해 보세요.

35) ④

2%	22%	3%	67%	5%
----	-----	----	-----	----

36) ②

☞ Zola Guide 선지 ②와 ⑤ 오답률이 높았음. 전체적으로도 정답률은 50%인 문제였음.

37) ②

38) ③

☞ Zola Guide 정답률이 60%(ebs는 39%)임. 을 제시문은 도가인데 유가로 착각해서 그러함. 본 제시문은 자료 교재에도 있고, 수업 시간에도 어떻게 해석(독해)해야 하는지, 왜 유가가 아니라 도가인지 설명해줬음!

39) ㄱ, ㄴ, ㄷ

40) ②

2%	75%	2%	1%	21%
----	-----	----	----	-----

☞ Zola Guide 1. 선지 ⑤를 선택한 분들은 두 가지 실수를 하였음. (1) 개념 실수, (2) 독해 실수. 독해에 대한 것은 Zola 생윤 O(바나나 제거 특강)에서 다루었음.

☞ Zola Guide 2. 제시문의 사상은 벤담이다. 자료 교재에 실려 있는 제시문이다. 단,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은 ‘공리주의자이네’ 정도로 해서 풀면 된다.

41) ④

3%	2%	2%	91%	2%
----	----	----	-----	----

42) ⑤

2%	6%	6%	2%	84%
----	----	----	----	-----

☞ Zola Guide 제시문은 ‘규칙’ 공리주의임. 아래 참고

[제시문] 사회에 더 큰 선을 산출하는 규칙
공리주의 + 규칙 ⇒ 규칙 공리주의

43) ④

2%	20%	2%	75%	1%
----	-----	----	-----	----

☞ Zola Guide 선지 ②한 바나나 님들아 아래 설명 잘 봐두셈. 참고로 강의에서도 다루었음.

[제시문] 돈이 필요해 장기 이식을 스스로 결정한 행위

[분석] 목적 수단

정리하자면 ‘돈’이 목적이 되고 ‘나(장기)’는 수단이 됨. 이것은 칸트의 정언명령의 형식 중에서 인격성에 어긋남. 따라서 나는 인격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정언명령에 따라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 자율성임.

44) ⑤

2%	7%	7%	1%	83%
----	----	----	----	-----

☞ Zola Guide 제시문 확인. 의무‘에 맞는’과 의무‘이기 때문에(로부터 나온, ~에서 비롯된)’를 구분해야 함.

45) ⑤

4%	2%	2%	2%	90%
----	----	----	----	-----

46) ③

35%	9%	44%	7%	5%
-----	----	-----	----	----

☞ Zola Guide 바나나들이 수능에서 왜 망하는지를 보여주는 문제임. 윤사 기출임. 정답률을 보셈. 수업 필기 내용 그대로 있음. 그런데도 처음 나오니까 틀림. 정확히 말하면 자주 나오는 문장의 포함 관계를 묻는 문장임.

[핵심 필기 확인] ‘의무에 맞는 행위’와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와의 집합 관계를 잘 확인할 것.

47) ②

5%	84%	2%	6%	2%
----	-----	----	----	----

48) ④

2%	3%	3%	90%	3%
----	----	----	-----	----

☞ Zola Guide ④ 벤담에 의하면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고) 양적인 차이를 계산할 수 있음. 참고로 ebs 정답률은 78%임. 메가 자료와 차이가 있음.

49) ②

5%	63%	3%	7%	22%
----	-----	----	----	-----

☞ Zola Guide

- 칸트: 행위 그 자체가 옳으니가 행해야 함. 도덕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님.
- 공리주의(벤담, 밀):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도덕임. 즉 도덕은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수단임.

50) ②

51) ①

- ☞ Zola Guide ① 칸트: 정직하라는 준칙은 보편화 가능함. 그러나 거짓말하라는 준칙은 보편화 불가능함.
- ② 칸트: 도덕 법칙은 자연적 경향성과 구별됨.

52) ①

☞ Zola Guide 선지 ②~⑤는 지식적으로 알아두세용~

53) ④

2%	2%	6%	85%	5%
----	----	----	-----	----

54) ⑤

3%	2%	3%	3%	90%
----	----	----	----	-----

☞ Zola Guide 윤사를 하지 않는다면 '영원법'에 대해서는 몰라도 됨. 글고 선지 ②와 ④도 몰라도 됨. 참고로 선지 ④는 득해로 가능함.

55) ①

☞ Zola Guide 가상 연설문을 쓴 사상가는 스토아학파의 아우렐리우스이다. 님들은 스토아학파를 알기 보다는 자연법 윤리이갸구나를 파악하면 됨. 제시문에서 '자연'과 '의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면 됨.

56) ①

64%	8%	3%	6%	18%
-----	----	----	----	-----

☞ Zola Guide 윤사급 문제임. 윤사처럼 공부해야 한다는 Zola 얘기가 맞았음. √. 인간은 자신의 본성 즉 이성을 잘 실현해야 함.

57) ②

☞ Zola Guide 선지 ①은 해서는 안 된다! 제시문 확인해 봐! 눈앞에 있는 제시문의 정보를 놓치면 안 된다!

58) ⑤

16%	2%	10%	8%	64%
-----	----	-----	----	-----

☞ Zola Guide ① 시기나 질투와 같은 감정, 살인과 같은 감정은 그 자체로 도덕적(품성적) 덕이 될 수 없음. 도덕적 덕이 될 수 없으면 중용이 될 수도 없음.

59) ④

2%	3%	4%	84%	4%
----	----	----	-----	----

60) ④

1%	6%	3%	74%	16%
----	----	----	-----	-----

61) ③

1%	6%	89%	3%	1%
----	----	-----	----	----

62) ①

66%	6%	17%	8%	3%
-----	----	-----	----	----

63) ②

64) ①

75%	7%	5%	11%	2%
-----	----	----	-----	----

☞ Zola Guide 답을 도출하는데는 사상가까지는 필요없음. 그러나 '을' 제시문 눈팅 잘 해 둘 것. '을'은 벤담임.

65) ④

☞ Zola Guide 선지 ②를 선택했다면 칸트 개념 강의 부분을 다시 확인하길 바람. '의무에 맞는'과 '의무이기 때문에(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 그 자체가 옳기 때문에)'를 구분해야 함!

66) ②

3%	91%	2%	2%	2%
----	-----	----	----	----

67) ④

13%	3%	6%	74%	5%
-----	----	----	-----	----

68) ②

12%	67%	8%	9%	4%
-----	-----	----	----	----

69) L, C

☞ Zola Guide ≡은 바나나 선지임. 미래 세대가 현 세대(미래 세대 기준으로 하자면 과거 세대)에게 책임을 질 수 없음. 그래서 책임은 현 세대의 '일방적' 책임임. ≡ 오답률이 31%임!!!!(ebs 기준)

70) ②

2%	83%	2%	10%	3%
----	-----	----	-----	----

☞ Zola Guide ebs 추정 정답률은 68%로 낮음. ebs가 맞다면 너무 공부 안 한 것임. 특히 선지 ④는 바나나 선지임.

71) 아래 표 참고!

입장	학생	YOU!
(1) 인류의 존속을 정언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2) 인간은 사전적 책임이 아니라 사후적 책임을 중시해야 한다.		아래 (4)와 같은 선지임. <사전적=인과적>이라고 보면 됨.
(3) 현세대와 미래 세대는 서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Zola O에서 강조한 바나나 선지임. 미래 세대가 현 세대에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능함!
(4) 현세대는 과거 행위에 대한 인과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Zola O에서 강조한 바나나 선지임. 이 선지는 비윤리적임!
(5) 책임 있는 행위를 하도록 복돋우는 공포를 습득해야 한다.		✓
(6) 책임의 대상이 겹을 공포를 현세대의 의무로 전환시킬 수 없다.		
(7) 인간은 가치 중립적 관점에서 자연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72) 아래 표 참고. 국어(독해)로 풀 수 있음.

관점	학생	YOU!
인간의 이타적 행동은 신의 뜻에 따른 것이다.		
인간의 이타적 행동은 생물학적 진화의 결과이다.		✓
인간은 선천적이고 불변하는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윤리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도덕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

73) ②

74) ④

75) ③

76) ⑤

77) ①

54%	8%	15%	4%	19%
-----	----	-----	----	-----

78) ②

3%	68%	19%	7%	3%
----	-----	-----	----	----

79) ⑤

0%	1%	1%	3%	95%
----	----	----	----	-----

80) ④

☞ Zola Guide 가로열쇠 A: 토의(검'토'하고 혐'의'함) B: 여론

81) ⑤

4%	10%	3%	4%	79%
----	-----	----	----	-----

☞ Zola Guide 국어로도 풀리는 문제임. 갑 사상가가 누군지 몰라도 공리주의라는 개념으로도 풀림. 그런데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아서 의아함. but!!!! 바나나가 되기 싫으면 갑 사상가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지식을 장착해두길 바람! 갑 사상가는 밀임!!

82) ②

3%	79%	6%	2%	10%
----	-----	----	----	-----

83) ⑤

2%	4%	17%	9%	68%
----	----	-----	----	-----

84) 가, 다

85) ④

4%	11%	31%	48%	3%
----	-----	-----	-----	----

☞ Zola Guide (1) 갑은 도가 사상임. '진인'이라는 단어가 길잡이 역할을 함. 그리고 문장을 분석하면 '진인'은 '분별심으로 도를 버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임. 즉 분별심으로 도를 버리게 됨. 이것은 유가의 '분별심'을 비판하는 글임. anti 유가임. 따라서 도가임. (2) 을은 에피쿠로스임.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기쁨 추구)임. 제시문의 마지막에 '즐거움/향유'에서 쾌락주의자임을 알 수 있어야 함!

86) ②

17%	68%	4%	7%	4%
-----	-----	----	----	----

☞ Zola Guide (가)는 유가임. 살신성인(殺身成仁)과 관련된 내용임. 구차하게 사느니 당당하게 죽겠다!

87) ②

3%	92%	3%	1%	1%
----	-----	----	----	----

88) ③

3%	15%	65%	4%	14%
----	-----	-----	----	-----

89) ④

4%	3%	4%	86%	3%
----	----	----	-----	----

90) ⑤

24%	4%	12%	4%	56%
-----	----	-----	----	-----

☞ Zola Guide 정답되는 선지가 바나나 선지임.

91) ㄱ, ㄴ

☞ Zola Guide 갑-플라톤, 을-도가(장자)

92) ④

1%	1%	3%	94%	0%
----	----	----	-----	----

93) ③

2%	2%	46%	4%	45%
----	----	-----	----	-----

☞ Zola Guide 독해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바나나 문제임. 바나나들이 'ㄷ'에서 많이 탈림. 제시문에 따르면 태아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가 됨.(잠재성 논거임)

94) ②

☞ Zola Guide 자료 분석형임. good~

95) ④

18%	1%	1%	78%	1%
-----	----	----	-----	----

96) ③

1%	6%	83%	1%	9%
----	----	-----	----	----

97) ⑤

3%	2%	8%	2%	86%
----	----	----	----	-----

98) ①

96%	1%	1%	1%	0%
-----	----	----	----	----

99) ②

6%	76%	12%	3%	3%
----	-----	-----	----	----

☞ Zola Guide 다른 기출들에 비해 정답률이 낮은 문제임. ebs 추정 정답률은 64%임.

100) ②

4%	86%	8%	1%	1%
----	-----	----	----	----

101) ④

6%	11%	1%	73%	9%
----	-----	----	-----	----

102) ③

103) ㄱ, ㄷ

☞ Zola Guide 고2 교육청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자료 분석형 문제임. 수능의 원래 취지에 충실한 문제임.

ㄱ. 교과서 수준의 지식이 필요함.

[교학사] 생식 보조술은 그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출산 도구로 소외시키고, 아기의 건강도 보장할 수 없다. 시술 과정에서 여성은 매일 주사를 맞거나 채혈해야 한다. 난소 과잉 자극 증후군* 같은 병에 노출되며, 위험한 다태 임신**을 감수해야 한다.

* 난소 과잉 자극 증후군: 배란 유발제로 인해 난소가 커지고 주머니 모양의 혹이 생기며 복수가 차는 등의 질환.

** 다태 임신: 한 배에 둘 이상의 태아를 갖는 임신.

ㄴ. 답이 안 됨. '친모의 난자'와 '친부의 정자'가 활용됨이 자료에서 확인되기 때문임.

ㄷ. 맞춤형 아기는 유전병을 예방하려는 부모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음. 즉 문제점이 아님.

104) ④

2%	2%	1%	60%	35%
----	----	----	-----	-----

105) ⑤

5%	3%	1%	5%	86%
----	----	----	----	-----

106) ⑤

4%	2%	10%	9%	75%
----	----	-----	----	-----

107) ㄴ, ㄷ

108) ⑤

1%	1%	3%	1%	94%
----	----	----	----	-----

109) ①

90%	3%	4%	1%	2%
-----	----	----	----	----

110) ②

1%	84%	2%	2%	11%
----	-----	----	----	-----

☞ Zola Guide 바나나 저격용 문제임. 공부 안 하고 국어로 풀면 답이 바로 나옴. 그런데 바나나들이 기껏 생운 공부해서 제시문을 '보수주의'라는 개념 공부한 것으로 파악하고 선지 ⑤를 선택함. 제시문-보수주의-선지 ⑤를 선택한 분들께 진지하게 묻습니다. 선지 ②는 보수주의 아닌가요? 선지 ②도 보수주의인데 선지 ⑤를 선택한 '객관적 근거'는 어디 있나요?

111) ④

4%	3%	4%	87%	3%
----	----	----	-----	----

112) ④

1%	1%	2%	94%	2%
----	----	----	-----	----

☞ Zola Guide 23 수능 문제 중에서 네 번째로 쉬웠던 문제임. 국어로도 풀림.

113) ④

11%	4%	4%	78%	3%
-----	----	----	-----	----

114) ③

115) ①

72%	9%	3%	6%	10%
-----	----	----	----	-----

116) ㄴ, ㄷ

☞ Zola Guide 제시문에 혼례는 두 '성(姓)'이 하나가 되는 것임. 여기서 성(姓)은 가문, 집안, 가계, 혈통을 의미함. 즉, 혼례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닐 집안 간의 문제임. 그래서 ㄱ, ㄴ, ㄷ 모두 틀림. '당사자 간'이 아님. 일단 여기까지가 기출 제시문 내용임. 단, 최근 전통 윤리는 이 정도까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런가보다라는 정도로만 파악하고 넘어가자(만약 나오면 님들은 대박일 거임^^).

117) ②

118) ①	92%	4%	1%	1%	1%
--------	-----	----	----	----	----

119) ④	3%	1%	2%	92%	2%
--------	----	----	----	-----	----

120) ④	3%	9%	16%	67%	5%
--------	----	----	-----	-----	----

121) ③	1%	3%	86%	9%	1%
--------	----	----	-----	----	----

☞ Zola Guide ㉠=효

② 효의 완성=입신양명(몸을 세워 이름을 떨침)

④ 효와 시작=불감훼상(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

122) ③	11%	4%	82%	1%	2%
--------	-----	----	-----	----	----

☞ Zola Guide 선지 ①[부자유친의 본질은 집단과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가 바나나 선지임. 그런데 오답률이 가장 높음. '본질은 ~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지'하고 바나나 선지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했음. Zola 생운 O 강의-바나나 제거 특강(orbiclass,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바나나 제거 특강' 검색하면 됨)을 듣고 연습하셈! 100% 도움됨!

123) ③	3%	2%	68%	17%	10%
--------	----	----	-----	-----	-----

124) ②	5%	85%	3%	4%	3%
--------	----	-----	----	----	----

125) ④

☞ Zola Guide (1) A는 '자선', B는 '경애'임. 그래서 님들은 '자애'에 대한 선지를 골라야 함. 참고로 님들 선배 바나나들은 A에 '위문', '위로' 등을 떠올려서 그때부터 망했음.....ㅋㅋㅋㅋ

(2) '자애'와 '효'는 연관성은 있지만 서로 다른 개념임.

[참고] '자애'와 '효'가 구분된다는 점은 오르비 김준호 강사의 공개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필자도 알아채지 못했다. ('현자의 돌' 블로그에 올라온 글 중 일부임. <https://blog.naver.com/cucuzz/221373192727>)

126) ②	2%	86%	2%	7%	3%
--------	----	-----	----	----	----

127) ④	2%	11%	2%	84%	2%
--------	----	-----	----	-----	----

128) ③	1%	1%	95%	1%	2%
--------	----	----	-----	----	----

129) ④	6%	6%	6%	77%	5%
--------	----	----	----	-----	----

130) ④	4%	2%	3%	87%	4%
--------	----	----	----	-----	----

131) ②	4%	54%	17%	7%	15%
--------	----	-----	-----	----	-----

☞ Zola Guide ② '구원의 수단'과 '구원의 확신의 수단'은 다른 '문장'임. 바나나 제거 특강에서도 다른 선지임.

132) ⑤	11%	13%	16%	5%	54%
--------	-----	-----	-----	----	-----

☞ Zola Guide 국어로 풀리는 문제임. 제시문 마지막 문장에서 '직업이 정신적 가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는 조건(단서)이 붙어 있음.

133) ①	85%	2%	2%	2%	9%
--------	-----	----	----	----	----

134) ⑤	1%	1%	2%	7%	89%
--------	----	----	----	----	-----

135) ②	1%	55%	1%	43%	1%
--------	----	-----	----	-----	----

☞ Zola Guide <보기> ≒ 때문에 정답률 낮아짐. 바나나 제거 특강에서 다른 선지임. (1) '자연스럽게'는 '저절로'를 의미함. ≒은 '분업이 되면 저절로 이상 국가가 실현된다'임. 그럴까? 지식적인 내용은 자료 교재 혹은 개념 강의에 나옴.

(2) 일부 논리가 뛰어난(?)? 바나나들은 자연스럽게를 '충분조건'으로 생각하고 풀었다고 함. 선지에서 충분조건인지 아닌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바나나분들이 너무 상상력을 많이 발휘한 것 같음. 묻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말 것!!

136) ③	3%	6%	88%	2%	1%
--------	----	----	-----	----	----

137) ③	3%	5%	83%	3%	6%
--------	----	----	-----	----	----

138) ①	88%	4%	1%	5%	2%
--------	-----	----	----	----	----

139) ⑤	2%	5%	1%	5%	87%
--------	----	----	----	----	-----

140) ⑤	2%	2%	1%	1%	94%
--------	----	----	----	----	-----

141) ③	1%	1%	93%	2%	2%
--------	----	----	-----	----	----

☞ Zola Guide 초딩 도덕 문제 같음. 국어와 정상적인(?) 도덕성으로 풀고 넘어갈 것.

142) ③

1%	2%	95%	1%	1%
----	----	-----	----	----

143) ④

37%	5%	1%	47%	9%
-----	----	----	-----	----

☞ Zola Guide 독해로 해결 가능한 ㄴ을 놓친 수험생이 38%

144) ④

1%	1%	54%	42%	2%
----	----	-----	-----	----

☞ Zola Guide 수능에 처음 나온 선지가 ㄱ임. 그래서 많이 틀렸음.

145) ㄱ, ㄴ, ㄷ

☞ Zola Guide 15 수능 19번의 <보기> ㄱ에서는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 수단’이라는 표현이 있었음. ‘합리적인 사회 강제력’과 헷갈리지 말 것. 개념 강의에서도 주의시키는 부분이므로 헷갈리면 개념 강의 다시 확인할 것.

146) ⑤

6%	4%	14%	10%	66%
----	----	-----	-----	-----

147) ④

11%	2%	10%	72%	5%
-----	----	-----	-----	----

148) ②

12%	62%	8%	7%	11%
-----	-----	----	----	-----

149) ⑤

2%	3%	38%	3%	(44~)54%
----	----	-----	----	----------

☞ Zola Guide 기출 분석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수능 문제임. 6명이나 9명 만점 혹은 고득점 받았다고 자만하면 안 되는 문제임.

150) ④

5%	11%	2%	77%	5%
----	-----	----	-----	----

☞ Zola Guide 기출에 사용된 선지 재활용한 문제임.

<17>[기출 선지들] OX 확인해 보자!

[14-9-15, 78%] 사회 부정의는 <u>외적 강제력</u> 을 통해 타파되어야 한다.	
[14-수능-19-ㄷ, 47%] <u>사회적 강제력</u> 을 통해서라도 사회 부정의를 해결하세요.	
[14-수능-19-ㄹ, 47%] <u>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승인하지 않는</u> 방법은 배제하세요.	
[15-수능-19-ㄱ, 41%] <u>선의지의 통제</u> 를 받는 <u>비합리적 수단</u> 이 필요하다.	
[15-수능-19-ㄹ, 41%] <u>도덕적 설득</u> 과 <u>정치적 강제력</u> 이 병행되어야 한다.	
[16-9-6, 79%]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u>합리적인 사회 강제력</u> 을 권고한다.	
[17-6-10-ㄷ, 66%]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u>선의지의 함양</u> 이 필요하다.	
[17-6-10-ㄹ, 66%]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u>강제력</u> 의 사용이 필요하다.	
[17-수능-5, 72%] 개인 간 갈등은 <u>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u> 으로 조정될 수 있다.	
[18-수능-13, 89%] 진정한 정의는 <u>선의지</u> 만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19-6-13, 62%] 집단 간 대립 상황에서도 개인은 <u>비이기적 태도</u> 를 취할 수 있다.	
[19-수능-3, 54%] <u>최소한의 강제력</u> 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51) ①

92%	2%	2%	2%	2%
-----	----	----	----	----

☞ Zola Guide 선지 ②~⑤ 모두 잘 알아둘 것.

152) ⑤

10%	16%	6%	16%	52%
-----	-----	----	-----	-----

153) ③

☞ Zola Guide 정답률이 30%가 되지 않았음.

154) ①

155) ②

6%	46%	17%	15%	17%
----	-----	-----	-----	-----

☞ Zola Guide 이 문제 정답률이 낮은 것은 님들의 지식 공부가 부족해서임. 단지 그것뿐임.

156) ㄱ, ㄴ, ㄷ, ㄹ

157) ③

6%	4%	85%	4%	1%
----	----	-----	----	----

158) ④

5%	3%	18%	46%	28%
----	----	-----	-----	-----

159) ③

10%	6%	49%	26%	9%
-----	----	-----	-----	----

160) ③

8%	9%	51%	6%	23%
----	----	-----	----	-----

161) ⑤

3%	5%	13%	4%	74%
----	----	-----	----	-----

162) ③

7%	9%	29%	11%	44%
----	----	-----	-----	-----

☞ Zola Guide <보기> ㄱ이 대표적인 역대급 바나나임. Zola 생운 O-part 2 강의에서 다루었음.

163) ①

40%	13%	28%	5%	15%
-----	-----	-----	----	-----

☞ Zola Guide 바나나 문제임. 그런데 정답률이 너무 낮음. ㅏㅏ

164) ②

12%	33%	40%	5%	10%
-----	-----	-----	----	-----

165) ④

10%	10%	6%	56%	17%
-----	-----	----	-----	-----

166) ③

6%	11%	68%	7%	9%
----	-----	-----	----	----

167) ①

47%	3%	19%	16%	14%
-----	----	-----	-----	-----

☞ Zola Guide ① 롤스에게 있어서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이 소유 권리는 '기본적 자유'에 해당함. 기본적 자유의 제한 조건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언급하였음. ③ 노직은 '취득-이전-교정'이 한 세트로 외워져야 함. 취득이 정당하더라도 이전이 부당하면 교정의 대상이 됨. 마찬가지로 이전이 정당하더라도 취득이 부당하면 교정의 대상이 됨.

168) ②

5%	63%	7%	18%	7%
----	-----	----	-----	----

☞ Zola Guide ㄱ.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소멸한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노직과 롤스는 국가 안에서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하다고 본다. ㄷ. 최소 국가는 부정의한 분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교정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ㄴ. 노직에 의하면 자기 노동의 결과물이 아니어도 정당한 이전에 의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ㄹ. 롤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롤스에 의하면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기본적 권리이다. 롤스는 기본적 권리는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169) ④

7%	8%	20%	32%	34%
----	----	-----	-----	-----

☞ Zola Guide ㄷ. 롤스: 기본적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님. 다른 '기본적' 자유와 상충할 경우 제한이 가능함.

170) ④

19%	4%	4%	67%	6%
-----	----	----	-----	----

171) ⑤

7%	8%	17%	25%	43%
----	----	-----	-----	-----

172) ⑤

9%	18%	30%	6%	37%
----	-----	-----	----	-----

173) ④

26%	6%	13%	48%	7%
-----	----	-----	-----	----

☞ Zola Guide ㄱ 선지가 새로운 선지임. but 선지 조합상 답은 맞출 수 있음.

174) ⑤

18%	26%	21%	10%	26%
-----	-----	-----	-----	-----

☞ Zola Guide 공부 제대로 한 진짜 1등급과 어정정한 1등급을 구분짓는 선지가 'ㄷ' 선지임.

175) ⑤

176) ②

2%	86%	2%	9%	1%
----	-----	----	----	----

177) ②

2%	90%	3%	2%	3%
----	-----	----	----	----

178) ⑤

5%	53%	4%	6%	32%
----	-----	----	----	-----

☞ Zola Guide 선지 ②를 선택한 바나나님들에게 묻습니다. 롤스(을) '취득 및 양도 절차'를 '기준'으로 언제 제시했나요? 롤스의 정의의 기준은 뭔가요? 님들 뇌피셜로 문제 푸는 것 아닙니다!

179) ③

5%	7%	68%	5%	15%
----	----	-----	----	-----

180) ⑤

5%	4%	4%	11%	76%
----	----	----	-----	-----

181) ⑤

182) ①

78%	4%	5%	5%	8%
-----	----	----	----	----

183) ①

184) ⑤

2%	3%	3%	4%	85%
----	----	----	----	-----

185) ②

5%	(46~)57%	36%	1%	1%
----	----------	-----	----	----

186) ⑤

3%	6%	32%	23%	37%
----	----	-----	-----	-----

187) ②

2%	(51~)65%	3%	23%	7%
----	----------	----	-----	----

188) ⑤

10%	4%	3%	44%	38%
-----	----	----	-----	-----

189) ④

190) ④

6%	2%	7%	72%	13%
----	----	----	-----	-----

191) ⑤

42%	12%	5%	11%	28%
-----	-----	----	-----	-----

192) ⑤

7%	6%	2%	2%	83%
----	----	----	----	-----

193) ③

4%	10%	75%	6%	5%
----	-----	-----	----	----

194) ⑤

3%	5%	10%	3%	79%
----	----	-----	----	-----

195) ⑤

3%	2%	6%	13%	76%
----	----	----	-----	-----

196) ②

3%	78%	5%	7%	7%
----	-----	----	----	----

197) ③

23%	12%	20%	40%	6%
-----	-----	-----	-----	----

☞ Zola Guide 문항 난이도에 비해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 수험생들의 학습 방법 혹은 문제 풀이 방법의 약점을 알 수 있는 문제였음.

198) ②

4%	79%	6%	5%	5%
----	-----	----	----	----

199) ④

3%	8%	57%	22%	10%
----	----	-----	-----	-----

☞ Zola Guide ④ 칸트에 따르면 베카리아의 계약론적 입장은 형벌권을 범인의 동의에 기초한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으로 명백히 잘못된 입장이다.

③ 베카리아는 사형이 효과가 없다고 본 것이 아니라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즉, 사형의 효과가 '적다'는 것이지 '없다'는 것이 아님. 역대 최고 오답률임. ebs 추정 오답률은 82%임. ㅋㅋ... 솔직히 짜잔한 선지임.

200) ⑤

4%	4%	12%	12%	68%
----	----	-----	-----	-----

☞ Zola Guide <보기> ≡ 틀린 분들은 바나나 기질이 강한 분들임. 조심해야 함. (1) 일단 제시문에 조건 (단서)이 나오는데 그걸 읽고도 모름. 제시문을 가볍게 보는 바나나임. (2) 그리고 계약론 개념 자체가 '계약 조건'을 전제로 하는 개념임. 개념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상가의 세부적인 지식에 매몰되는 분들임. 조심할 것! Zola가 알려주는 대로 푸셈!!

201) ⑤

6%	4%	21%	5%	65%
----	----	-----	----	-----

202) ④

19%	17%	6%	46%	13%
-----	-----	----	-----	-----

☞ Zola Guide 문제 난이도에 비해서 정답률이 낮은 문제임. 의무론(칸트) 입장에서는 공적 이익과 공적 정의는 다른 개념임. 기본 개념으로 충분히 풀 수 있음.

203) ⑤

11%	8%	45%	10%	25%
-----	----	-----	-----	-----

☞ Zola Guide 선지 ④가 처음 나왔음. 당시 ebs 해설에 오류가 있던 선지임. 정답 되는 선지는 조심해야 함.

204) ④

3%	2%	4%	85%	6%
----	----	----	-----	----

205) ③

5%	25%	57%	2%	11%
----	-----	-----	----	-----

☞ Zola Guide 같은 로크(사회계약론)이고, 을은 아리스토텔레스(본성론)이다. ③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인간의 본성은 정치적인)로서 공동체(국가)는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는 상호 동의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상호 동의에 의해 국가가 생긴다는 입장은 사회계약론적 입장이다.

206) ③

2%	8%	75%	9%	7%
----	----	-----	----	----

207) ④

9%	3%	15%	65%	9%
----	----	-----	-----	----

208) ①

43%	16%	5%	8%	28%
-----	-----	----	----	-----

209) ④

17%	14%	11%	32%	26%
-----	-----	-----	-----	-----

☞ Zola Guide 처음 등장한 선지 조합임. 킬러가 될 운명의 선지 조합임(과탐에서는 활용되는 조합이었음).

210) ①

45%	10%	22%	13%	11%
-----	-----	-----	-----	-----

211) ③

4%	9%	68%	8%	11%
----	----	-----	----	-----

212) ③

5%	3%	86%	4%	2%
----	----	-----	----	----

213) ㄱ, ㄴ

☞ Zola Guide 같은 순자(분별, 예), 을은 흠스이다.

214) ③

1%	3%	67%	8%	19%
----	----	-----	----	-----

215) ④

2%	14%	6%	70%	7%
----	-----	----	-----	----

☞ Zola Guide 정답률이 낮은 이유는 제시문의 정보를 무시하기 때문임. 개념도 필요하지만 국어처럼 접근하는 것도 필요한 문제임.

216) ⑤

4%	3%	4%	7%	82%
----	----	----	----	-----

217) ⑤

9%	26%	7%	8%	50%
----	-----	----	----	-----

☞ Zola Guide 정답이 되는 선지 ⑤를 개념 강의에서 필기·설명했음.

218) ③

6%	17%	60%	10%	5%
----	-----	-----	-----	----

☞ Zola Guide 제시문 사상가는 흄스(사회계약론)임. ③은 아리스토텔레스임. 알아두자.

219) ②

6%	90%	2%	1%	1%
----	-----	----	----	----

☞ Zola Guide 독해로 가능함. but(!)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요 사상가이므로 지식으로도 확인해 둘 것.

220) ④

7%	11%	11%	68%	3%
----	-----	-----	-----	----

221) ②

33%	54%	4%	1%	8%
-----	-----	----	----	----

222) ②

11%	66%	17%	5%	1%
-----	-----	-----	----	----

☞ Zola Guide (1) 이 문제 정답률이 60%대라는 것은 운사 바나나들이 얼마나 독해를 안 하고 불확실한 자신의 머리에 의존하는지를 잘 보여줌.

(2) 사상가는 '흄'임. 그러나 사상가는 몰라도 되고 '혜택론'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됨.

223) ③

224) ④

3%	8%	2%	85%	3%
----	----	----	-----	----

☞ Zola Guide 처음 나온 문제임. 그러나 정답률은 높음. 이유는 하나. 독해형이어서 그러함. 앞으로 지식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함.

225) ②

226) ③

6%	5%	41%	28%	20%
----	----	-----	-----	-----

227) ①

48%	1%	5%	33%	13%
-----	----	----	-----	-----

228) ④

5%	3%	5%	84%	3%
----	----	----	-----	----

229) ①

53%	14%	3%	23%	7%
-----	-----	----	-----	----

☞ Zola Guide 대표적인 바나나 문제임. Zola 생운 O-part 2 강의에서 다루었음.

230) ③

6%	3%	57%	10%	24%
----	----	-----	-----	-----

☞ Zola Guide <보기> = 을 고민하고 있으면 바나나임. Zola 생운 O 강의 확인할 것.

231) ②

2%	67%	7%	9%	15%
----	-----	----	----	-----

232) ②

16%	73%	4%	4%	4%
-----	-----	----	----	----

☞ Zola Guide 처음으로 소로, 롤스 이외의 시민 불복종 사상가(싱어)가 등장한 문제임. 을 제시문이 왜 싱어가 되는지 독해 포인트를 강의 통해서 반드시 확인할 것.

233) ④

1%	9%	14%	74%	2%
----	----	-----	-----	----

234) ⑤

5%	3%	19%	19%	54%
----	----	-----	-----	-----

☞ Zola Guide 이지영 쌤이 이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고 여러 학생들에게 전해 들었음. but Zola는 오류 없다고 봄. 이상 없음.

[간단 해설]

ㄱ. 롤스에 의하면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된 정의감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ㄴ. 롤스에 의하면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ㄷ. 싱어에 의하면 시민 불복종은 법의 통치 및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명백히 하는 행위이다.

ㄹ. 롤스와 싱어 모두 시민 불복종의 실제적인 영향력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235) ④

3%	3%	4%	68%	22%
----	----	----	-----	-----

236) ③

16%	3%	52%	24%	6%
-----	----	-----	-----	----

237) ㄴ, ㄷ

238) ⑤

2%	5%	35%	15%	43%
----	----	-----	-----	-----

239) ①

38%	45%	3%	7%	7%
-----	-----	----	----	----

☞ Zola Guide 선지 ①이 처음 나온 선지임. 선지 ②도 처음 나온 선지임. 시험장에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였음.

240) ①

50%	19%	13%	5%	12%
-----	-----	-----	----	-----

241) ①

242) ①

☞ Zola Guide 아주 전형적인 지식형 문제임. 틀렸다면 님의 백지 복습이 약한 것임.

243) ③

2%	8%	59%	7%	24%
----	----	-----	----	-----

244) ⑤

2%	15%	2%	2%	79%
----	-----	----	----	-----

245) ④

32%	9%	4%	49%	5%
-----	----	----	-----	----

☞ Zola Guide 갑~정의 입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질문	갑	을	병	정
ㄱ. 과학자는 자료를 위조해서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	X	X	O	X
ㄴ. 과학자는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어 자유롭게 연구해야 하는가?	X	X	X	O
ㄷ. 과학자는 연구자체만이 아니라 사회적 부작용도 책임져야 하는가?	O	X	X	X
ㄹ. 과학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과정에서 표절을 해서는 안 되는가?	O	O	X	X

246) ③

2%	2%	93%	2%	1%
----	----	-----	----	----

247) ④

23%	2%	4%	68%	3%
-----	----	----	-----	----

☞ Zola Guide ㄴ. 하이데거는 가치 중립성을 비판한다. ㄹ. 야스퍼스와 하이데거 모두 과학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윤리의 문제로 본다. [주의] ㄱ. 제시문에 따르면 기술 그 자체는 선악이 아니지만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선악의 문제이다. 제시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독해 가능함).

248) ④

2%	4%	13%	75%	5%
----	----	-----	-----	----

☞ Zola Guide

(1) 의외로 정답률이 낮음. ebs 예상 정답률은 69%임. 참고로 23학년도 9평 문제가 동일 유형이었는데, 이 때는 정답률이 90%였음. 이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2) 갑, 을 사상가가 각각 누구인지는 중요치 않음. 어떤 '입장'인지만 알 수 있으면 됨. 참고로 갑은 야스퍼스, 을은 하이데거임.

249) ①

82%	5%	10%	2%	1%
-----	----	-----	----	----

250) ⑤

☞ Zola Guide 정답률이 62%여서 깜놀했음.

251) ④

7%	18%	4%	69%	1%
----	-----	----	-----	----

252) ③

3%	6%	78%	4%	9%
----	----	-----	----	----

253) ②

8%	87%	2%	2%	1%
----	-----	----	----	----

254) ④

17%	2%	4%	76%	1%
-----	----	----	-----	----

255) ④

4%	3%	5%	85%	3%
----	----	----	-----	----

256) ②

7%	69%	21%	1%	2%
----	-----	-----	----	----

257) ③

1%	1%	96%	1%	1%
----	----	-----	----	----

258) ①

97%	1%	0%	0%	0%
-----	----	----	----	----

259) ④

260) ②

14%	59%	7%	2%	16%
-----	-----	----	----	-----

261) ④

4%	22%	13%	46%	12%
----	-----	-----	-----	-----

262) ②

15%	26%	18%	13%	28%
-----	-----	-----	-----	-----

263) ④

5%	6%	12%	56%	21%
----	----	-----	-----	-----

264) ③

8%	2%	80%	6%	4%
----	----	-----	----	----

265) ②

5%	63%	7%	12%	13%
----	-----	----	-----	-----

266) ③

7%	17%	36%	22%	18%
----	-----	-----	-----	-----

☞ Zola Guide '을' 제시문을 '인간 중심주의'로 푸신 분들이 엄청 많음. 을의 어디가 인간 중심주의인가요??? 을은 인간의 이익 관심을 '초월'한, '새로운', '자연 전체를 조망'하라는데, 님들은 어디를 보고 인간 중심주의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267) ②

2%	84%	7%	3%	2%
----	-----	----	----	----

268) ③

9%	7%	21%	13%	50%
----	----	-----	-----	-----

269) ①

70%	8%	15%	3%	4%
-----	----	-----	----	----

270) ①	44%	10%	11%	23%	12%
271) ③	5%	46%	28%	9%	11%
272) ②	2%	65%	2%	28%	3%
273) ⑤	17%	9%	9%	29%	35%
274) ①	28%	3%	5%	59%	5%
275) ②	5%	65%	6%	14%	10%
276) ③	9%	10%	29%	17%	35%
277) ③	7%	13%	59%	13%	7%
278) ④	8%	3%	6%	74%	9%
279) ④	3%	6%	23%	55%	13%
280) ③	5%	14%	58%	6%	17%
281) ④	1%	11%	41%	45%	2%
282) ③	7%	25%	39%	8%	21%
283) ③	2%	14%	63%	15%	6%
284) ③	11%	21%	36%	5%	27%
285) ⑤	5%	19%	4%	9%	63%
286) ③	24%	5%	53%	7%	11%
287) ⑤	12%	9%	11%	19%	49%

☞ Zola Guide <보기> ㄹ에서 ‘환원’이라는 단어(워딩)를 칸트가 사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다는 워딩 바나나를 보았습니다. 생운 공부나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시험지는 사상가의 워딩을 그대로 따온 복사본일 경우도 있지만, 사상가들의 입장을 제3자(연구자)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환원’이라는 단어를 칸트가 사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바나나가 될 것이 아니라 칸트의 입장을 환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인간이 되길 바랍니다.

288) ①	52%	5%	5%	33%	6%
289) ③	13%	19%	49%	10%	9%
290) ⑤	11%	8%	12%	27%	42%
291) ②	8%	40%	19%	11%	22%
292) ③	5%	13%	43%	11%	29%
293) ②	22%	49%	10%	8%	11%

294) ④

295) ㄴ, ㄷ

296) ④	18%	5%	1%	71%	5%
--------	-----	----	----	-----	----

☞ Zola Guide 의외로 정답률이 낮네요. 이유가 뭘까요???

297) ⑤	2%	2%	31%	3%	62%
--------	----	----	-----	----	-----

☞ Zola Guide 선지 ③ 선택하신 분들은 제시문 바나나임. 개념을 극대화시키고, 제시문의 정보들을 무시함. 제시문 첫 번째 문장에서 선지 ③을 판단할 수 있음.

298) ④. 메가스터디 예상 정답률 88%

299) ②. 메가스터디 예상 정답률 96%

300) ③	8%	2%	78%	3%	10%
--------	----	----	-----	----	-----

☞ Zola Guide 사상가는 플라톤. 선지 ⑤는 정신 차릴 것! 인간이 이데아를 창조할 수 없음.

301) ③	2%	16%	72%	6%	4%
--------	----	-----	-----	----	----

☞ Zola Guide 칸트의 예술관이 처음으로 등장한 문제임. 단, 답은 칸트 예술관에 대한 지식 없어도 나옴.

302) ①	77%	3%	4%	3%	13%
--------	-----	----	----	----	-----

303) ④	7%	3%	4%	77%	9%
--------	----	----	----	-----	----

☞ Zola Guide 칸트 예술관이 단독형으로 출제된 최초의 문제임. 칸트 예술관은 공부해 두라는 의미이지 않을까?

304) ②	4%	83%	5%	2%	6%
--------	----	-----	----	----	----

305) ①	69%	7%	9%	6%	6%
--------	-----	----	----	----	----

306) ②	2%	84%	4%	4%	6%
--------	----	-----	----	----	----

307) ②	5%	81%	10%	3%	1%
--------	----	-----	-----	----	----

308) ⑤	3%	1%	2%	3%	91%
--------	----	----	----	----	-----

☞ Zola Guide 정답되는 선지가 바나나 선지일 듯(너무 당연!)

309) ③	4%	3%	90%	1%	2%
--------	----	----	-----	----	----

310) ②	3%	90%	3%	2%	2%
--------	----	-----	----	----	----

311) ㄱ, ㄷ

312) ④	6%	1%	1%	85%	8%
--------	----	----	----	-----	----

313) ④	1%	14%	1%	81%	3%
--------	----	-----	----	-----	----

☞ Zola Guide 제시문의 사상가가 '지멜'이라는 것은 문제 푸는데 1도 필요없음. 참고로 교과서에 나오는 사상가임.

314) ⑤

315) ③	2%	4%	82%	5%	7%
--------	----	----	-----	----	----

☞ Zola Guide 제시문의 사상가가 '포퍼'라는 것은 문제 푸는데 1도 필요없음. 참고로 교과서에 나오는 사상가임.

316) ④	1%	1%	4%	94%	1%
--------	----	----	----	-----	----

317) ⑤	3%	3%	6%	5%	83%
--------	----	----	----	----	-----

318) ⑤	1%	1%	2%	2%	94%
--------	----	----	----	----	-----

319) ⑤	5%	7%	6%	10%	72%
--------	----	----	----	-----	-----

☞ Zola Guide 선지 ② 보충.

첫 번째 줄: '나'는 기본적 권리는 문화라는 맥락 안에서 행사될 수 있다. [문화>관리]로 볼 수 있음.

네 번째 줄: '어떤 학자'는 소수문화를 이유로 별도 권리 부여에 반대함. 따라서 이 입장은 [문화<관리]라는 입장으로 이해될 수 있음.

320) ㄱ, ㄴ

321) ④	0%	0%	3%	96%	1%
--------	----	----	----	-----	----

322) ③	3%	1%	90%	1%	5%
--------	----	----	-----	----	----

323) ④	1%	2%	10%	74%	13%
--------	----	----	-----	-----	-----

324) ④	5%	7%	8%	76%	4%
--------	----	----	----	-----	----

325) ③	3%	2%	89%	4%	2%
--------	----	----	-----	----	----

326) ②	2%	83%	5%	3%	7%
--------	----	-----	----	----	----

327) ①	76%	7%	5%	4%	8%
--------	-----	----	----	----	----

328) ⑤	5%	13%	3%	2%	77%
--------	----	-----	----	----	-----

329) ①	72%	7%	12%	5%	4%
--------	-----	----	-----	----	----

☞ Zola Guide 엘리아데 백지 복습되어 있으면 5초만에 답 나오는 문제임. 정답률이 72%(ebs 추정 정답률 58%)이라는 것은 그만큼 개념 또는 사상가 공부량이 적다는 것임. 기출을 대충 눈대중으로 푸니까 이런 일이 수능장에서 생기는 것임. 엘리아데 백지 복습 반드시 할 것! 평소에 문제 잘 맞춘다고 자만하지 말 것!!

330) ①

331) ⑤

332) ②	1%	96%	1%	1%	1%
--------	----	-----	----	----	----

☞ Zola Guide 원효 일심 사상 처음 나옴. 그렇다고 어려운 것은 절대 아님.

333) ④	1%	5%	2%	86%	6%
--------	----	----	----	-----	----

334) ⑤	0%	1%	1%	1%	97%
--------	----	----	----	----	-----

335) ③	3%	2%	91%	3%	1%
--------	----	----	-----	----	----

336) ①	65%	10%	6%	16%	3%
--------	-----	-----	----	-----	----

337) ①	79%	15%	2%	3%	1%
--------	-----	-----	----	----	----

338) ①	96%	1%	1%	1%	1%
--------	-----	----	----	----	----

☞ Zola Guide 선지 ⑤ 꼭 확인할 것! 개인적 준칙 주장 가능함.

339) ⑤	5%	3%	17%	3%	72%
--------	----	----	-----	----	-----

340) ④	10%	2%	2%	84%	2%
--------	-----	----	----	-----	----

341) ④	1%	3%	7%	87%	2%
--------	----	----	----	-----	----

342) ④	19%	26%	11%	26%	16%
--------	-----	-----	-----	-----	-----

343) ①	82%	4%	2%	4%	8%
--------	-----	----	----	----	----

344) ③	11%	5%	79%	3%	3%
--------	-----	----	-----	----	----

345) ④	5%	5%	4%	74%	12%
--------	----	----	----	-----	-----

346) ①	76%	4%	4%	13%	2%
--------	-----	----	----	-----	----

☞ Zola Guide ① 모겐소(갑)는 국제관계를 권력을 위한 투쟁의 장으로 파악한다.

347) ③	5%	5%	75%	9%	6%
--------	----	----	-----	----	----

348) ⑤

349) ④	3%	7%	3%	84%	3%
--------	----	----	----	-----	----

350) ③	3%	2%	90%	3%	1%
--------	----	----	-----	----	----

351) ②	15%	75%	3%	3%	3%
--------	-----	-----	----	----	----

352) ②	50%	28%	8%	4%	9%
--------	-----	-----	----	----	----

353) ③	4%	4%	84%	6%	2%
--------	----	----	-----	----	----

354) ④	10%	5%	19%	57%	10%
--------	-----	----	-----	-----	-----

355) ④	3%	13%	4%	67%	14%
--------	----	-----	----	-----	-----

☞ Zola Guide 바나나 저격용 보기가 있음.

356) ④	9%	9%	6%	74%	2%
--------	----	----	----	-----	----

☞ Zola Guide 선지 ④는 문장 바나나 저격용임. 단, 나머지 선지들은 지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57) ⑤	3%	9%	3%	11%	75%
--------	----	----	----	-----	-----

☞ Zola Guide 여러 입시 사이트에서 <보기> ~이 오류라고 지적하였음. but Zola는 오류가 아니다라는 입장임. 게시판에도 글을 남겨두었음. 설명은 강의에서!

358) ②	15%	63%	11%	5%	6%
--------	-----	-----	-----	----	----

359) ②	13%	63%	16%	4%	4%
--------	-----	-----	-----	----	----

360) ④	9%	2%	4%	71%	14%
--------	----	----	----	-----	-----

361) ③	3%	3%	90%	3%	2%
--------	----	----	-----	----	----

362) ③	7%	5%	79%	3%	3%
--------	----	----	-----	----	----

363) ⑤	1%	7%	2%	1%	89%
--------	----	----	----	----	-----

364) ②	2%	72%	15%	5%	5%
--------	----	-----	-----	----	----

365) ①	49%	4%	5%	37%	5%
--------	-----	----	----	-----	----

366) ①	63%	12%	14%	2%	9%
--------	-----	-----	-----	----	----

367) ③	3%	1%	90%	4%	2%
--------	----	----	-----	----	----

368) ⑤	5%	5%	5%	2%	83%
--------	----	----	----	----	-----

369) ④	4%	22%	11%	44%	19%
--------	----	-----	-----	-----	-----

☞ Zola Guide 선지 ⑤가 문제가 된다. 내용(개념) 확인은 내용 강의에서 반드시 할 것. 그러나 선지 ⑤가 문제가 되어도 시험장에서 여러분은 이 문제를 틀리면 안 되었다. 이유는 문제 풀이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

370) ①	49%	11%	9%	16%	14%
--------	-----	-----	----	-----	-----

371) ④	7%	9%	3%	75%	6%
--------	----	----	----	-----	----

372) ④

5%	6%	6%	75%	5%
----	----	----	-----	----

373) ①

66%	2%	18%	7%	7%
-----	----	-----	----	----

☞ Zola Guide 제시문을 앞 부분만 보고는 틀린 바나나들이 있음. 제시문을 끝까지 읽고 판단을 하길 바람.

374) ③

12%	6%	66%	7%	10%
-----	----	-----	----	-----

375) ④

3%	2%	12%	79%	4%
----	----	-----	-----	----

376) ③

6%	15%	55%	9%	15%
----	-----	-----	----	-----

☞ Zola Guide ㄱ, ㄴ은 바나나 선지에 가까움. 틀린 분들은 강의 확인 반드시 할 것. 바나나 제거해야 함!

377) ①

72%	3%	3%	15%	8%
-----	----	----	-----	----

378) ⑤

5%	5%	22%	11%	57%
----	----	-----	-----	-----

379) ②

3%	75%	2%	17%	3%
----	-----	----	-----	----

380) ㄱ, ㄷ

☞ Zola Guide 공격적인 사회(무법 국가)가 처음 등장하는 문제임.

381) ③

4%	9%	58%	10%	19%
----	----	-----	-----	-----

☞ Zola Guide [정답] ㄷ. 롤스에 따르면 원조는 차단점이 있어야 한다. ㄹ. 싱어에 따르면 원조의 득실을 고려해야 한다.

[오답] ㄱ. 노력에 따르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원조는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원조를 의무로 강요하는 것이 개인의 소유권리를 침해한다고 본다. ㄴ. 롤스는 원조를 통해 자원 분포의 우연성을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치 문화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382) ⑤

4%	6%	8%	7%	76%
----	----	----	----	-----

383) ④

4%	4%	7%	78%	8%
----	----	----	-----	----

384) ③

12%	4%	59%	5%	20%
-----	----	-----	----	-----

☞ Zola Guide 시험장에서는 'ㄱ'을 제낄 수 있는 지식(개념)이 있어야 함. 율이 싱어, 공리주의자임을 안다면 ㄷ은 공리주의 개념적인 득해로 제낄 수 있음. 그러면 답이 나옴.

385) ③

3%	8%	60%	6%	23%
----	----	-----	----	-----

